“月 5만5000원에 무선 데이터 무제한”

SKT 모바일 인터넷전화 도입…유무선 시장 주도권 잡기

KT·LGU+ 등 통신시장 무한경쟁으로 “고객은 즐거워”

SK텔레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유무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반격에 나섰다. 기존 통신업체들이 내놓지 못했던 무선데이터 무제한 이용이나 휴대전화 3G망에서 인터넷전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파격 또 파격…무제한 무선데이터·인터넷전화도 자유=1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데이터 수요가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올인원55·65·80·95 요금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요금제 고객은 휴대전화에서 3G망으로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게 됐으며 휴대전화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연결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테더링(tethering)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G망에서 동영상 등 용량이 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데이터 소비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3G망에서도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료 인터넷 지역인 와이파이 지역에서만 인터넷 전화가 가능했지만 SK텔레콤의 서비스로 3G망과 와이파이 지역 모두에서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됐다. 월 정액요금에 따라 5만5000원짜리 요금제 가입자는 월 1000분, 6만5000원짜리는 1500분, 9만5000원짜리는 3500분까지 허용된다. 여기에 각 정액요금에 딸린 기본 통화시간까지 합하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유선상품도 저렴…긴장하는 통신업계=가구 단위 신규 결합상품은 그야말로 폭탄선언이다. 전 가족이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쓸 경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는 공짜라는 말에 가깝다. 이동전화 2회선에 가입한 가구는 집전화(PSTN 또는 인터넷전화) 200분 무료, 3회선 가입 가구는 초고속인터넷이 무료이며, 4회선 가입 가구는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5회선 가구는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기본료 1만원 무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당장의 수익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파격 요금제를 SK텔레콤이 내세우는 것은 국내 1위 통신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통, ‘온국민은yo’ 등의 상품을 내세우며 한발 먼저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서의 진검 승부를 시작한 데 이어, SK텔레콤도 가족형 결합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통신업계 경쟁으로 “고객은 즐거워”=LG유플러스의 ‘온국민은 yo’ 요금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 온 가족의 통신요금을 가족수(2인·3인·5인)에 따라 9만원·12만원·15만원으로 상한금액을 지정하고 16만원·24만원·30만원까지 최대 2배에 달하는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9만원·12만원·15만원보다 적게 쓰면 쓴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된다. 또 기존 결합상품과는 달리 할인 대상에 통화료, 문자뿐 아니라 무선인터넷까지 포함됐으며, 유선상품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하나만 가입하거나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등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만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T의 ‘올레 통’은 휴대폰 집전화 TV 등을 모두 합쳐 휴대폰 사용량에 따라 10만원·13만원·16만원을 내는 요금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초고속인터넷과 쿡TV 스카이라이프, 6만원 상당(최대 556분)의 휴대폰 통화 혜택을 받는다. 가족간 통화는 무제한 무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든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고객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며 “서비스 질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이상 다양한 서비스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출시 및 m-VoIP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KT, 해외서도 ‘와이파이 서비스’

SK텔레콤이 전세계 81개 국가 공항과 호텔, 카페 등에서 이용 가능한 ‘T로밍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우선 서비스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8월말까지 신청한 이들에게 1주일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공급한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T로밍’ 홈페이지(www.sktroaming.com)에서 15일부터 이용 신청을 해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SKT-삼성電 안드로이드앱 개발대회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를 공동 주최한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직장인 등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90개팀을 대상으로 총 상금 3억2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대회는 최우수상 2개 팀에 각 5000만원, 금상 5개 팀에게는 각 1000만원, 은상 15개 팀에게는 각 500만원, 동상 50개 팀에게는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상세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 : //tac.tsto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10월 25일에 발표한다.

KT ‘쇼끼리 문자 마음대로’

KT는 문자메시지 요금을 기존보다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는 부가요금상품인 ‘쇼(SHOW)끼리 완전할인문자’를 선보인다.

‘쇼끼리 완전할인문자’는 쇼 고객끼리 사용하는 문자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망내할인 문자부가요금제로 SMS(단문메시지), MMS(멀티메일)을 가리지 않고 월 1만원으로 10만원 상당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1만원으로 SMS 500건을 보낼 수 있었으나 ‘쇼끼리 완전할인문자’를 이용하면 1만원으로 쇼 고객에게 SMS 5000건까지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타사 고객에게 문자 발송시 발생하는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닭이 달걀보다 먼저다”

英 연구팀, 달걀 껍데기 형성 원리 규명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에 대해 영국 연구팀이 닭의 판정승을 내렸다.

영국 워위크대와 셰필드대 과학자들은 정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닭 난소에 존재하는 오보클레디딘-17이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탄산칼슘을 결정체로 전환해 달걀 껍데기를 만드는지 규명했다.

관찰 결과 오보클레디딘-17 단백질은 탄산칼슘 입자에 달라붙어 결정체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다가 결정핵이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떨어져 나갔다.

달걀 껍데기는 짧은 시간에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결국 달걀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모체인 닭이 달걀에 우선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온라인 과학전문 매체인 유레카얼러트(www.eurekalert.org)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번에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인공 결정체 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고릴라도 술래잡기 하네

英 연구팀, 3년간 노는 모습 녹화 화면 분석

고릴라들도 술래잡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포츠머스대학의 마리나 다빌라 로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네덜란드와 독일 등 5개의 동물원에서 고릴라 21마리가 노는 모습을 3년에 걸쳐 녹화한 화면을 분석해 14일 생물학 저널 ‘바이올로지 레터스’에 실었다.

연구팀은 한 마리의 고릴라가 다른 고릴라를 건드린 뒤 달아나고 다른 고릴라가 뒤쫓아가 건드리는 사례를 86개나 찾아냈다.

또한 역할을 바꿔 쫓아가던 고릴라가 쫓기는 경우도 발견했다.

로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건드린 고릴라는 스스로 우월성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러한 우월성을 유지하려고 달아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당한 고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뒤쫓아가 다시 상대를 건드림으로써 동등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한 가볍게 건드렸을 때에는 고릴라들이 달아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우연 내달 10~13일

‘항공우주과학 캠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8월10~13일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항공우주 현장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우주과학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우주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국립 청소년체험센터에서 다양한 우주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모집인원(선착순)은 교원의 경우 70명, 청소년은 80명이며 청소년의 경우 초등 3학년 이상, 중학생 카리스쿨 회원이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

자세한 사항은 카리스쿨 홈페이지(www.karischool.re.kr)을 참조하면 되고 참가자 발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강필상기자 kps@